

中唐 僧侶 詩風의 先驅者

靈一의 詩世界와 文學史的 意味 考察

이 경 민
(동아대학교)

1. 들어가면서

중당은 중국 문학사에서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다.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문학 현상 중의 하나가 “詩僧”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詩僧”이란 말 그대로 “시를 쓰는 승려”라는 의미이다. 물론,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시를 썼던 승려가 中唐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아니다. 東漢 시기에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위진 남북조 시기에 이미 知道林, 慧遠 등이 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후 初唐과 盛唐 시기에도 寒山이나 拾得, 王梵志 등 다수의 詩作을 남긴 승려들이 출현하고 있다.¹⁾ 그러나 그들의 시는 대부분 설교적 내용으로, 시라는 형식을 빌려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거나, 또는 평이한 구어체로 된 백화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당시의 시단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詩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

1) 실제로, 《先秦魏晉南北朝詩》(逮欽立輯校, 中華書局, 1983)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승려 42명의 시 9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中國歷代詩僧全集一晉, 唐, 五代卷》(沈玉成, 印繼梁 主編, 當代中國出版社, 1997)에는 진대에서 수대까지 43명의 승려 시작 249수를 수록하고 있다.

에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문학사적 현상으로서의 중당시기의 “詩僧”과 시승의 시가 창작과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시승”은 우선, 단순히 설교적인 시, 또는 시라는 형식을 빌려 불교적 교의를 표현했던 그런 “시”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보다 “시다운 시”를 썼던 승려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는 당시 시단에서 많은 문인들에게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던, 중국 전통의 “시” 관념에 부합되는 시가 창작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문적으로 시를 쓴 “시승”은 중당 시기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여, 만당 오대를 거쳐 북송시대 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중당의 靈一, 皎然, 靈澈, 그리고 만당 오대의 齊己와 貫休, 북송시기의 九僧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시승”의 첫 출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학계에서 여러 주장들이 병존하고 있다.²⁾ 그러나 중당시기에 전문적으로 시를 썼던 많은 시승들이 출현하였으며, 또한 詩壇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출가 승려의 시가 창작이 유례없는 번성을 이루었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는 바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고에서는 중당 시승 및 승려 시풍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靈一의 시 세계와 중당 승려 시풍의 선구자로서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시승 영일의 생애와 불교 사상

시승 영일은 개원 15년(727년)에 출생하여, 개원 23년에 9세의 나이로 불문에 들었다. 그 후 20세가 되던 해에 구족계를 받고 법심(法慎)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四分律>을 배웠다. 출가 후 회계 지역의 현류사(懸溜寺)에서 수행하다가 후에 경운사(慶雲寺)로 옮겨 지내다가 다시 여항(餘杭)의 의풍

2) “詩僧”의 개념 정의 및 출현 시기 등에 관해서는 拙稿 “中唐 “詩僧”에 대한 문학사적 의미 考察 - 중당 시승과 율종과의 관계 및 시승의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학』29집, 2007)와 학위논문 “中唐詩僧群體研究” (중국 북경사범대학 박사학위 논문, 2010)를 참고.

사(宜豐寺)로 수행처를 옮겨 지나다가, 보응 원년(762년)에 항주(杭州) 용흥사(龍興寺)에서 입적하였다. 그 때 나이 불과 35세로, 매우 짧은 생애를 살았다.

영일의 생평에 관한 사료는 독고급(獨孤及)의 <唐故揚州慶雲寺律師一公塔銘并序>에 기록되어 있으며, 《宋高僧傳》 권15 <唐余杭宜豐寺靈一傳>과 《唐才子傳》 권3 <道人靈一>에도 보인다. 3)

공의 휘는 영일이고, 속가 성이 오 씨이며, 광릉(지금의 강소성 양주) 사람이다. 기운이 맑고 온화하였으며, 마음은 땅의 영험함을 받아 태초의 순수한 원기와 하나를 이루었다. 문사로 지혜를 닦으시다 특별히 깨달은 바 있어서, 9세에 출가하셨다. 삼천세계와 인연을 끊고서 율장을 엄수하시면서 법보를 이어받으셨으며, 문학으로 사람들에게 세존의 지혜를 가르치셨다. 몸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몸이 있음을 따지지 않으시며, 덕으로써 원만을 이루셨다. 인연이 다하여 멸적하셨다. 보응 원년 겨울 11월 16일 항주 용흥사에서 입적하셨으니, 그때 나이 36세 이셨다. 4)

독고급의 《塔銘》과 《宋高僧傳》의 기록은 대동소이하다.⁵⁾ 단지 몇 몇 글자가 차이가 나고, 《宋高僧傳》에서는 9세에 동자승으로 출가하여 20세의 나이에 구족계를 받았으며, 입적하실 때의 나이를 “春秋三十五”세로 적고

3) 이하 《塔銘》, 《宋高僧傳》, 《唐才子傳》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4) 《全唐文》 389권, 독고급《唐故揚州慶雲寺律師一公塔銘并序》

“公諱靈一，俗姓鳴，廣陵人也。神氣清和，方寸地靈，與太初元精，合其純粹。聞思修慧，介然生知，九歲出家，三千斷結。嚴持律藏，將紹法寶，示人文學，以誘世智。初不計身中有我，我中有身，德充報圓，緣斷相減。寶應元年冬十月十六日，終於杭州龍興寺，春秋三十有六。”(上海古籍出版社, 1995년, 1753쪽).

5) 《宋高僧傳·唐余杭宜豐寺靈一傳》：“釋靈一，姓鳴氏，廣陵人也。神清氣和，方寸地虛，與太初元精和氣純粹。年肇九歲，僻嫌朽宅，決入梵園，墮息慈之倫，稟出家之制。暨乎始冠，受其具足，學習無倦，律儀是修。示見談笑，欲明解脫。示人文藝，以誘世智。初不計身中有我，我中有身。德全道成，緣斷形謝，以寶應元年冬十月十六日，寂滅於杭州龍興寺，春秋三十五，凡滿十五安居。”(宋贊寧撰，范祥雍點校，中華書局, 1996, 359쪽)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찬영(贊寧)의 《宋高僧傳》은 독고급의 《塔銘》을 근거로 서술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唐才子傳》의 기록은 《塔銘》이나 《宋高僧傳》과 다소 차이가 있다. 6)

(영)일 공은 섬중(剡中) 사람이다. 동자승으로 출가하여 바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사령운을 추종하였으며, 마원의 세 번째 골짜기에서 은둔을 하면서 초가를 짓고 정진하였다. 그 후, 깨달음을 얻어 약야계의 운문사에서 기거하였는데, 추종하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찾아들었다. 특히 시에 뛰어났는데, 그 시풍이 순박하고 온화하였으며, 격률이 맑고 유창하였다. 양절 지역에는 명산이 많은데, 형산과 여산에는 모두 이름난 사찰들이 있어서 모두 거쳐 지나간 바 있다. 황보근계(황보염), 엄소부(엄유), 주산인(주방), (영)철상인 등과 시를 주고 받으며 교류하였다. 성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고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총림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후에 잠산에서 입적하였다. 시문집이 지금까지 전한다. 7)

《塔銘》, 《宋高僧傳》, 그리고 《唐才子傳》의 기록으로 볼 때, 영일의 생평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첫째는 영일의貫籍과 관련된 문제이다. 《塔銘》과 《宋高僧傳》에서는 “속세 성이 오씨이고, 광릉 사람이다 姓鳴氏, 廣陵人.”라고 하고 있고, 《唐才子傳》에서는 “(영)일공은 섬중 사람이다. 一公, 剡中人.”라고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唐才子傳》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영일과 관련된 사료의 기록 년대를 보면, 독고급은 영일보다 몇 년 앞선 개원 13년(725년)에 태어나 777년에 세상을 떠났

6) 이 문제에 대해 중국학자 부선중(傅璇琮)은 《唐才子傳》 3권 <道人靈>의 주석에서 “(원나라 때의) 辛文房이 《塔銘》이나 《宋高僧傳》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부선중 주편, 《唐才子傳》, 중화서국, 2000년, 529쪽)

7) 부선중 주편, 《唐才子傳》 3권 <道人靈>, 中華書局, 2000, 529쪽

“一公, 剡中人. 童子出家, 瓶鉢之外, 余無有. 天性超穎, 追蹤謝客, 隱麻源第三谷中, 結茆讀書. 後白業精進, 居若耶溪雲門寺, 從學者四方而至矣. 尤工詩, 氣質淳和, 格律清暢. 兩浙名山, 暨衡、廬諸甲刹, 悉所經行. 與皇甫昆季、嚴少府、朱山人、徹上人等為詩友, 酬贈甚多. 刻意聲調, 苦心不倦, 騁譽叢林. 後順寂於岑山. 集今傳世.”

으니, 영일과는 동년배인 셈이다. 그리고 그의 《塔銘》은 영일과 교유가 깊었던 이서(李紆)와 이탕(李湯)의 서술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서와 이탕은 독고급과도 교유가 깊었던 인물이기도 하므로 독고급의 《塔銘》은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唐才子傳》은 원나라 때의 신문방(辛文房)이 쓴 것으로, 부선중이 말했듯이, 당시 그가 《唐才子傳》을 쓸 때 “《塔銘》이나 《宋高僧傳》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둘째는 麻源에서의 “은거”와 관련한 문제이다. 《塔銘》이나 《宋高僧傳》의 내용과 달리, 《唐才子傳》에서는 영일이 “마원”이란 곳에서 초옥을 짓고 공부하면서 은둔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영일의 시<마원으로 떠나는 진운초를 보내며 送陳允初卜居麻源>에서도 “마원”에서의 은거를 언급하고 있다.

마원에서 은거하며 사령운의 발자취 찾을 수 있으리.

텅 빈 산 수 천리에 고요한 골짜기 겹겹이로다.

떠풀로 지붕 엮고, 연잎으로 옷 지어 입었었지.

그대로 인해 옛일 떠올리니, 내 대신 높은 소나무에 인사나 전해주게나.⁸⁾

이 문제에 대해, 부선중은 “진운초의 은둔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은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일은 출가 승려로써 은둔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는 신문방의 오류이다”⁹⁾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영일선사가 당시 실제로 마원에서 은거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선, 《塔銘》에서 “푸른 산을 이웃하고 아름다운 경계를 마주하고서 산속 소나무와 시내를 집으로 삼고 대나무 바람 달빛 아래의 이슬을 방으로 삼았다.”¹⁰⁾라는 내용은 위의 시에서 언급한 마원에서의 은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초 땅으로 부모님을 뱌러 돌아가는

8) 《全唐詩》 809권,

“欲向麻源隱，能尋謝客蹤。空山幾千里，幽谷第三重。茅宇寧須葺，荷衣不待縫。因君見往事，為我謝喬松。”

9) 부선중 주편 《唐才子傳》，中華書局，2000，530쪽.

10) “鄰青山，對佳境，以峯松澗石為梵宇，竹風月露為丈室。”

명소 상인을 떠나 보내며 送明素上人歸楚觀省>이란 시의 “옛날 은둔했던 평호에는 잔설이 남았겠지, 풀꽃 향기로운 곳 돌아가고픈 마음 봄도 막지 못하네. 平湖舊隱應殘雪, 芳草歸心未隔春”라는 구절에서도 “옛날 은둔했던 평호”라고 했듯이 평호에서도 은거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영일이 말하는 “은둔”이 일반적인 의미의 “은둔”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영일선사의 시 <의풍사로 다시 돌아가며再還宜豐寺>에서 “다시 은거할 곳 찾으니, 마음 쉴 날 기다리네.”¹¹⁾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출가한 승려로서 山居 생활 자체가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사는 은둔 생활인 것이다. 또 <대림에서 한명부와 함께 곽중정사로 돌아가며自大林與韓明府歸郭中精舍>에서는 “산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누가 곽중정사로 돌아가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가. 선문(禪門)에는 통은(通隱)이라는 것이 있으니, 시끄러움과 적막함을 모두 잇는다네.”¹²⁾라고 했으니, 靈一 역시 당시 유행하던 이른바 “通隱”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불교에서는 선종의 영향으로 굳이 세속을 벗어난 산속에서 수행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만 깨우치면 그 수행처가 속세든 어디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둔”은 수행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한명부가 도심 속의 정사로 돌아가는 것을 “通隱”이라고 했던 것이다.¹³⁾ 이로써 볼 때, 영일에게 있어서 “은둔”이란 첫

11) “再尋招隱地, 重會息心期。”

12) “不道還山是, 誰云向郭非。禪門有通隱, 喧寂共忘機。”

13) “通隱”은 《梁書》 제51권 《列傳第四十五·處士》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하접은 자가 자석으로 노강 천현 사람이다. …… 그 용모가 단아하고 여러 책을 통달하였으며, 담론에 뛰어났다. 집안은 원래 세족으로 높은 벼슬아치 집안과 혼인을 올렸다. 접은 비록 성안에 살지 않고 세상을 떠돌며 비너도 꽃지 않고 허리띠도 하지 않은 채 장작 수레를 몰기도 하고 짚신을 신고 다니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술이 취하여 돌아오곤 하였는데, 많은 사대부들이 그를 추종하며 통은라 불렀다.(何點, 字子哲, 廬江潯人也。…… 容貌方雅, 博通群書, 善談論。家本甲族, 親姻多貴仕。點雖不入城府, 而遨遊人世, 不簪不帶, 或駕柴車, 躡草屨, 恣心所適, 致醉而歸, 士大夫多慕從之, 時人號為通隱.)” 또 《晉書·鄧粲傳》에서는 “무릇 은둔의 도라는 것은 조정에서도 은둔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은둔할 수 있다. 시장에서도 은둔할 수 있다는 말은 은둔이 자신에게

제는 산거 생활 자체가 은거였으며, 또한 은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청정심)이지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는 영일의 具足戒를 받은 시기와 법신율사를 섬긴 일이다. 우선, 독고급의 《塔銘》에서는 9세 때 출가하였다고는 하였지만, 언제 계를 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宋高僧傳》에서 “약관의 나이에 구족계를 받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계율과 바른 행동을 닦았다.”¹⁴⁾라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始冠”은 바로 “약관” 즉 20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宋高僧傳》에서 “安居十伍年”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즉 20세에 계를 받아 35세에 입적하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어릴 때 출가를 한 경우, 출가한 후 7년이 지나면 사미승(沙彌僧)이 되고, 20살에 계를 받으며, 20세 이후에 출가를 할 경우에는 바로 계를 받지 않고 7~8년이 지난 뒤에 계를 받도록 했던 것에도 부합한다. 영일은 9세에 출가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0살이 되던 천보 6년(747년)에 법신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법신(法愼) 율사를 스승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도 《宋高僧傳》에서

“집안이 매우 부유하였으나 삭발하고 출가하였다. 천금의 재산을 물리치고, 모두 동생들에게 물려주고는 가사와 석장만을 가졌다. 유양의 법신을 스승으로 모시고서 상부율을 공부하였는데, 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극함에까지 이르렀다. 친한 사람으로는 혜웅, 명유, 영우와 회계의 담일, 진릉의 의선, 동문 삼익 등 작자 칠 인이었다.”¹⁵⁾

달려 있는 것이지 바깥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夫隱之為道，朝亦可隱，市亦可隱。隱初在我，不再與物。”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朝隱”，“市隱”도 모두 영일이 말한 “通隱”과 같은 의미이다. 중당의 시승 皎然은《최시어사에게 보내는 오언 伍言酬崔侍御見贈》이란 시에서 “시장에 숨은 들 어찌 불도를 방해 하리오, 선에 머물며 시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네. 市隱何妨道，禪栖不廢詩。”라고 했다.

14) “暨乎始冠，受其具足，學習無倦，律儀是修。”

15) “一家富貨殖，既而削髮，推千金之產，悉讓諸孤昆弟，所取者惟納衣錫杖。自爾叩維揚法愼師，學相部律，造乎微而臻乎極。友善者慧凝，明幽，靈祐，會稽曇一，晉陵義宣，同門三益，作者七人也。”

《宋高僧傳》권15 《唐常州興寧寺義宣傳》을 보면 영일과 함께 법신율사를 스승으로 모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⁶⁾ 그리고 《宋高僧傳》권14 《唐揚州龍興寺法慎傳》에서는 법신율사는 “천보 7년 10월 14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침상에서 가부좌를 하고서 마음으로 서방세계를 받들더니 곧 황혼이 질 무렵에 용흥사 별원에서 입적하셨는데, 그 때 춘추가 83세였으며, 법랍이 62세였다. 불가 제자들은 북으로는 (산동성의)泗河와 沂水에서부터 남으로는 영남의 경계에까지 슬퍼 우는 자가 천족(千族)에 이르렀으며, 다비식에 모인 이들만도 만 명에 이르렀다. 그 상좌가 이르길, 제자인 회계의 담일, 민 땅의 승려 회일, 남강의 승예, 진릉의 의선……학림사의 법려와 법회, 유양의 명유, 영우, 영일 등은 모두 음악을 이루지 않은 이가 없고, 빼어난 말 재주로 법화 삼매의 경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¹⁷⁾라고 했으며, 《宋高僧傳》 권6 <唐鳴興法海傳>에서도 “천보 연간에 양주의 법신율사로부터 강해를 들었는데, 담일 영일 등을 안진경과 황보염에게 추천하였다.”¹⁸⁾라고 적고 있다. 법해는 후일 중당의 대표적 시승인 교연과도 매우 깊은 친분을 맺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영일은 천보 6년에 법신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담일, 회일등과 함께 법신율사를 섬기면서, 당시에 “三一”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16) “비룡 지역에는 명사들이 많이 출현하였는데, 승려 중에는 삼선이 있는데, 바로 혜선, 덕선, 의선이 그들이다. 당시에 강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회계의 담일, 민천의 회일, 경운의 영일 동문들과 벗으로 지냈다. 진릉 지역에 삼선이 있지만, 법신 문하에서 다시 삼일이 출현하였으니, 이는 강남의 자랑거리였다.“毗陵多出名士，僧有三宣。慧，德，義是歟。時于江都習業，與會稽曇一，閩川懷一，慶雲曇一，同門為朋也。晉陵既有三宣，慎門復出三一焉，江表資為美談。”

17) 《宋高僧傳》권14, 중화서국, 1996년, 347쪽

“以天寶七載十月十四日晨興盥漱，就胡牀加趺，心奉西方，即嚔而滅于龍興寺別院，春秋八十三，夏六十二。緇素弟子，北距泗沂，南踰嶺微，望哭者千族，會葬者萬人。其上首日會稽曇一、閩僧懷一、南康崇叡、晉陵義宣……鶴林寺法勵、法海、維揚明幽、靈祐、靈一等，罔不成樂說辯才入法華三昧。”

18) “天寶中，五州法慎律師講肆，同曇一、靈一等推為顏、冉焉。復與杼山晝公為忘形之交，林下之遊。黑白二徒多從求益焉。”

영일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스승이었던 법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선, 법신은 당시 명망이 높았던 대덕이었으며, 율사였다. 《宋高僧傳》권14 <唐揚州龍興寺法慎傳>의 기록을 보면, 법신율사는 속성이 꼭 씨이며, 강도(江都, 양주)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출가하여 요대(謠臺) 성(成) 율사로 부터 구족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불법 수행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우선 율사로써 계율을 엄격히 지켰다는 점, 그리고 “문자로써 중생을 제도19)”했던 점과 불교와 유교의 합일20)을 주장했던 점이다. 또한 그는 율사임에도 다른 종파의 사상까지 두루 섭렵21)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비단 법신 율사뿐만 아니라, 당대, 특히 중당 이후의 율종의 율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22)

우선, 《塔銘》이나 《宋高僧傳》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일 역시도 율종으로 출가하여 계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宋高僧傳》에서 이르길,

“유양의 법신 율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서, 상부율을 배웠는데, 세세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 내어 지극함에 이르렀다. …… 폭풍이 산을 쓰러뜨려도 바른 지혜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거대한 파도가 해를 집어 삼켜도 나무까지 앓는 부랑 같았다. 그리하여 《법성론》을 지으시어 진제

19) “以文字度人，故工于翰墨。以法皆佛法。故兼采儒流以我慢为防。故自負衣鉢。以規規壬故綱正緇林。以發揮道宗。故上行恭禮。以感慕遺跡。故不遠他邦。以龍象參議龍。故再至京國。以軌度端明。故研精律部歟。”

20) “(법)신 율사는 사람의 지식들에게는 효에 의지하여, 신하들에게는 충에 의지하여 말을 하였으며, 뒷사람과는 인에 의지하여, 아랫사람과는 예에 의지하여 말을 하였다. 불교와 유교의 행동을 하나로 합쳤다. 慎與人子言依于孝。與人臣言依于忠。與人上言依于仁。與人下言依于禮。佛教儒行合而爲一。”

21) “謂天臺止觀包一切經義，東山法門是一切佛乘，色空兩忘，定慧雙照，不可得而城也。”

22) 이 점에 대해서는 즐고 “中唐 “詩僧”에 대한 문학사적 의미 考察 - 중당 시승과 율종과의 관계 및 시승의 문학사적 미를 중심으로” (『중국학』29집, 2007) 참고. 蔣寅은 이에 대해 “이 정·혜병중, 천재지관학설(이는 불교인식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적 체계의 하나이다)과 선종 심법을 동시에 취했다는 점에서 다른 것을 두루 섭렵하는 종합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대력 정원 연간 불교 종파 융합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蔣寅, 《大歷詩人研究》, 中華書局, 1995, 332쪽)

(眞諦)를 궁구하셨으니, 이것이 영일 율사의 깨달음의 말씀이다.”²³⁾

《塔銘》에서도 영일의 엄격한 계율과 검소한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9세에 출가하여 삼천세계와 인연을 끊으셨다. 율장을 엄격히 지키시어, 법보를 이으셨으며, 사람들에게 시문으로 세존의 지혜를 가르치셨다.”²⁴⁾

위의 내용 중에서 “示人文學，以誘世智”라는 내용은 바로 시로써 부처의 지혜를 드러냄으로써 중생을 이끄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말로, 이는 그의 은사였던 법신 율사의 “문자로써 사람들을 계도한다 以文字渡人”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또 <安公>이라는 시에서도 “옛 전서에서 글자를 배우고, 뜻은 심경에 드러내셨네. 가사적삼으로 화하에 적응하니, 존귀한 말씀 사해에 두루 미쳤네. 學文古篆中，義顯心經內。法服應華夏，金言流海岱”라고 했으니, 바로 도안이 옛 전서를 배워 시문을 지음으로써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삼았음을 가송하고 있다.

《塔銘》에서는 또 영일의 계율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어나서 출가하실 때까지 탐욕과 성냄이 없었으며, 슬프고 기쁨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으셨다. 출가하시어 열반에 드실 때 까지 육근(眼耳鼻舌身意)은 욕계의 티끌에 오염되지 아니하셨다. 도를 아시고 부터 참됨으로 되돌아가실 때까지 두 발로 거사의 문을 밟으신 적이 없었으니, 이 모든 것이 공께서 계율을 엄수하셨기 때문이다. 출가 당시 공의 집은 부자였지만, 삭발하시고 나서서 만금의 재산을 다 물리치시고, 형제에게 다 양보하시고 나니, 남은 것은 가사 한 벌, 석장, 그리고 몸뚱이, 이 세 가지 밖에 없었다.”²⁵⁾

23) “自爾叩維揚法慎師，學相部律，造乎微而臻乎極。……暴風偃山，正智不動，巨浪沃日，浮囊不飄。於是著法性論，以究真諦，此一之了語也。”
24) “九歲出家，三千斷結。嚴持律藏，將紹法寶，示人文學，以誘世智。”
25) “自受生至於出家，貪恚不入念，哀樂不見色。自出家至於涅槃，六根不染欲界之塵；自知道至於返真，雙履不踐居士之門，公之嚴持也。初公之先世為富家，既削發，推萬金之產，悉以讓諸孤昆季，所取者獨衲衣、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보면, 영일이 불법 수행에 있어서 계율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다. 영일은 심지어 청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처를 정할 때에도 “산속 나무 아래 먼지가 없는 곳을 가려 선택”을 정도였다고 한다. 영일과 선종과의 관계는 《塔銘》이나 《宋高僧傳》, 《唐才子傳》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塔銘》을 보면, 출가한 후 회계 남산 현류사에 머물 당시 선종의 선사들과 불교 경전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 회계 남산 현류사에 머물면서 선종의 선사 은공, 건인, 허정 등과 12부경의 제일의에 대해 토론하였다. 의혹을 해소한 후 의풍사로 옮겼다.²⁶⁾

영일의 은사 범신은 “律禪兼修”를 바탕으로 천태종의 지관 사상과 동산법문의 선학 등 다른 종파의 사상을 두루 섭렵,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일 또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어린 나이에 율종으로 출가한 영일로서는 우선 스승의 영향으로 율장을 견지하였지만, 율학과 선학 사이에 적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여기에 언급된 은공, 건인, 허정 등의 선종 선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느 계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선종의 달자(達者)라고 하는 선사들과 논쟁을 벌였었고, 또 의혹을 해소하고 의풍사로 수행처를 옮겼다고 한 것으로 보면, 당시 이 논쟁을 통해 영일은 선종의 선학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풍사로 수행처를 옮긴 영일은 이곳에서 수도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어《法性論》도 저술하게 된다.

또 영일은 자신의 시 <대림에서 한명부와 함께 광중정사로 돌아가며自大林與韓明府歸郭中精舍>에서는 “산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누가 광중정사로 돌아가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가. 선문에는 통은이라는 것이 있으니, 시끄러움과 적막함을 모두 잇는다네.”²⁷⁾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錫杖，及身而三。”

26) 《塔銘》：“初舍於會稽南山懸溜寺焉，與禪宗之達者釋隱空、虔印、靜虛相與討十二部經第一義諦之旨。既辨惑，徙居餘杭宜豐寺。”

27) “不道還山是，誰云向郭非。禪門有通隱，喧寂共忘機。”

“通隱” 역시 영일이 선종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든, 영일은 율종으로 출가하여 계율을 엄격히 지키면서 수행 정진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게 되었다. 李嘉祐는 <영일 상인과 이별하여 황보염과 관직으로 떠나며同皇甫冉赴官留別靈一上人>라는 시에서 “불법은 여산의 혜원을 이어받고, 시는 혜휴로부터 전수받으셨네.”²⁸⁾라고 하며 영일의 불법 수행과 시가 창작이 慧遠과 惠休와 필적할 정도라고 칭송했다. 엄유는 또 “경론은 스님네들에게 전하시고, 문장은 목객들에게 두루 이름 나셨네.²⁹⁾”라고 칭송하였다. 이처럼 문인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영일의 이미지는 높은 불법 수행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학적 재능까지 두루 겸비한 高僧大德이자 진정한 詩人이었던 것이다.

3. 詩僧 靈一의 시 세계

유감스러운 점은 현존하는 영일의 시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 영일의 시는 《全唐詩》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총 43(42수와 구)수가 수록되어 있다. 《全唐詩》 이외에도 역대 영일의 시 작품 수록 문헌을 살펴보면, 우선 중당 시기의 高仲武가 편찬한 당시선집 《中興間氣集》에 가장 먼저 수록되었으며, 만당 시기의 요합(姚合)이 편찬한 《極玄集》하권에도 4수의 시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저자 미상의 《唐四僧詩》에 34수가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역대선시선집-진당오대권》에는 《全唐詩》의 온전한 42수와 《古今禪藻集》2권의 <同長孫主簿仁壽寺納涼>과 4권의 <春曉山行> 2수를 더한 44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현존 시 중 영일의 작품으로 확인되는 총 작품수는 44수인 셈이다. 사실, 이처럼 제한된 작품만으로는 “詩僧” 靈一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영일 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문인과의 교유시(酬贈, 送別詩를

28) “法許廬山遠, 詩傳休上人” (《全唐詩》 206권)

29) “經論傳緇呂, 文章遍墨卿”(《全唐詩》 263권)

포함), 山居寫景詩, 그리고 歌頌詩의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영일과 승려나 문인들 간의 交遊詩에 대해 살펴보자. 영일의 시 44수 중에서 문인과 주고 받은 酬贈詩와 송별시는 모두 21수로, 이는 전체 중에서 반에 달하는 수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영일은 폭넓은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독고급의 《塔銘》의 기록을 보면, 天臺山의 道士 潘清, 廣陵의 曹評, 趙郡의 李華, 潁川의 韓極, 中山의 劉穎, 襄陽의 朱放, 趙郡의 李紆, 頓邱의 李湯, 南陽의 張繼, 安定的 皇甫冉, 範陽의 張南史, 清河의 房從心³⁰⁾ 등 많은 문인 사대부들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교유가 단순한 문인사대부와 승려 간의 불교적 교유가 아니라, ‘시를 매개’로 한, 시인 대 시인의 교감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승려와 문인의 시를 매개로 한 교유 관계는 특히 중당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승려와 문인의 교유가 불교라는 “종교(신앙)”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매개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전의 단순히 불교적 교리나 신앙 차원을 뛰어넘는, 보다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의 정감의 교감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唐代 중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일은 일상생활에서 불제자로서의 수행 이외에 시가 창작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고증무의 《中興間氣集》에서도 “제나라 양나라 이래로 출가자 중에서 시문에 뛰어난 자가 많았지만, 진정한 시인의 반열에 들어선 자는 많지 않았다. (영)일공은 능히 마음을 다해 뛰어난 시구를 지어, 사대부들과 화답하였으니, 어찌 훌륭하다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샘물이 앞뜰에서 솟아나고 구름이 집 밖 봉우리에서 생겨나는구나.’와 같은 구절이 어찌 도유나 보월이 이를 수 있는 경지이겠는가!”³¹⁾라고 영일의 시가

30) 《塔銘》：“蓋將吻合詞林，與儒墨同其波流，然後循循善誘，指以學路。由是與天臺道士潘清、廣陵曹評、趙郡李華、潁川韓極、中山柳穎、襄陽朱放、趙郡李紆、頓邱李湯、南陽張繼、安定皇甫冉、範陽張南史、清河房從心相與為塵外之友，講德味道，朗詠終日。”

31) 高仲武《中興間氣集·道人靈一》：“自齊梁以來，道人工文多矣。罕有入其流者，一公乃能刻意精妙，與士大夫更唱迭和，不其偉歟，如‘泉涌堦前地，雲生

창작을 칭송하였다. 특히 高仲武가 중당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때, 자신이 선별 편찬한 당시 선집에 영일의 시를 수록하고 칭송했다는 점에서 당시 문단에서 영일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영일의 《송별 送別》이란 시를 살펴보자.

높은 곳에 올라 그대 멀리 보낼 수 없어라. 떠나는 그대 바라보니 돌아가고
 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네.
 이별의 한은 원숭이 울음 소리에 서글퍼지고, 서로의 그리움은 흘러가는
 강물 속에 처럼 깊어간다.
 푸른 구름 남쪽 시냇가에 그림자 드리우고, 해질 녘 산 그림자 속 계수나무
 단풍 붉어라.
 짝지어 날아든 고니 한 쌍 아니었으면, 저 아득한 성에서 무엇을 다시 찾으
 리오.³²⁾

이 시는 누구를 떠나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친구를 떠나보내는 시인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특히 2절에서 그런 자신의 심정을 원숭이 울음 소리와 깊은 강물에 비유하고 있으며, 4절에서는 이별 후 다시 만날 기약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대의 승려들은 당시 사회 각 계 각 층의 문인들과 폭넓은 교류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중당 이후의 시승들과 사대부 문인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시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류에 있어서 시는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물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영일은 이미 ‘名僧’으로 세속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엄유는 자신의 시 <영일 상인을 애도하며 哭靈—上人>에서 “영일공 어찌 떠나셨는가, 하늘 멀리 이름만이 남았구나. 함께 잠산길 거닐며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가 볼수가 없구나. 옛 승방 앞 소나무는 더욱 늙었고, 새 탑엔 풀들이 자라

戶外峰’，則道猷、寶月曾何及此也。”(傳璇琮編撰，《唐人選唐詩新編》，1996, 511쪽)

32) “憑高莫送遠，看欲斷歸心。別恨啼猿苦，相思流水深。翠雲南澗影，丹桂晚山陰。若未來雙鵠，遼城何更尋。”(《全唐詩》809권)

나기 시작했네. 스님들께 경론을 전하고 문장은 목객들에게 널리 이름났었지. 선림의 가지 꺾여 지고 절간의 동량이 기울었도다. 누가 다시 스님네 이야기 들려나, 공의 전기 전해짐 알아야 하리.”³³⁾라고 노래했다. 이 시는 영일이 입적 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엄유가 영일을 애도하면서 쓴 작품이다. 이시에서 엄유는 영일의 죽음을 “선림의 가지가 꺾이고 절간의 동량이 기울어졌다”고 했다고 했으니, 당시 문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던 엄유 같은 문인조차 영일을 이렇게 높이 칭송했다는 말은, 영일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황보염은 <서릉에서 영일상인에게 보내다.西陵寄靈一上人> 라는 시에서 영일에 대한 친근함과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서릉 바람 맞는 곳, 예부터 나루터로 통했지.

온 종일 텅 빈 강 위엔, 구름 덮인 산만이 사람을 기다리는 듯.

물가에 겨울 준비 아직 일러, 물고기와 새의 정취 새롭구나.

고개 둘러 산 속 어두운 길 바라보니, 마음은 친근하기만 하구나.³⁴⁾

이 시에 대해 영일은 <황보염의 서릉에서 부친 편지에 화답하여酬皇甫冉西陵見寄>라는 시로 화답하였다.

서릉의 조수 가득 차 올라, 섬들도 물에 잠겨 흐른다지.

월평 나그네 바람과 강물에 기댄 채, 남쪽 나루터 생각에 잠겼구나.

차가운 빗줄기 가없는 강물에 생겨나니, 석양이 물가를 비추네.

무슨 일로 돛 올리고 갔을까, 바닷가 갈매기만 헛되이 놀랄 킬뿐인 것을.³⁵⁾

33) “一公何不住，空有遠公名。共說岑山路，今時不可行。舊房松更老，新塔草初生。經綸傳羅呂，文章遍墨卿。禪林枝幹折，法宇棟梁傾。誰復修僧史，應知傳已成。”(《全唐詩》263권)

34) “西陵遇風處，自古是通津。終日空江上，雲山若待人。汀洲寒事早，魚鳥興情新。回望山陰路，心中有所親。”(《全唐詩》249권)

35) “西陵潮信滿，島嶼沒中流。越客依風水，相思南渡頭。寒光生極浦，落日映滄洲。何事揚帆去，空驚海上鷗。”(《全唐詩》809권)

황보염의 시에서 영일과 운문사에서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둘러 산 속 어두운 길 바라보니 마음 속에선 오히려 친근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영일도 화답시에서 서릉에 있는 황보염을 염려하며 애뜻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두 시 이전에 영일과 황보염은 운문사에서 만난 적이 있다. 영일의 시 <酬皇甫冉將赴無錫，於雲門寺贈別>를 보면, 호수 남쪽은 오래된 절로 통하니, 오고 가고자 하는 마음 거리낄 것 없네. 운문사 가는 길 알고자 하니, 천개의 봉우리 약야계에 이르네. 봄 산엔 왕희지 고택 있고, 고목나무는 사령운의 집이라. 오랫동안 함께 은거할 수 있거늘, 어찌 멀리 떠나간다는 말 하시는가.”³⁶⁾라고 했다. 이 시를 보면, 아마도 황보염은 영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거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래서 앞의 시에서 “魚鳥”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속내(은일의 마음)를 표현했고, 영일은 또 속세로 돌아간 황보염에게 “바닷가 갈매기만 헛되이 놀래“킨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거 마음을 두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세속으로 돌아간 황보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작품 <위 상서를 애도하며 哭衛尚書>를 살펴보자.

화려한 창 세워진 그대 집 앞 초 땅의 강물도 차갑고, 하늘 끝 석양도 함께 슬퍼하네.
남형 땅엔 그대의 발자취 아직도 남아 있건만, 북두 고훈 올려다 보니 밤도 이미 깊었어라.
연화 장막엔 슬픈 바람이 일고, 엄한 군영엔 새벽달이 비추고 있네.
길 있어도 막막하니 누구에게 물어볼거나, 그대 생각에 공허히 눈물 옷실을 적시는 구나.³⁷⁾

이 시에서는 위상서를 애도하는 슬픔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

36) “湖南通古寺，來往意無涯。欲識雲門路，千峰到若耶。春山子敬宅，古木謝敷家。自可長偕隱，那言相去歎。”(《全唐詩》809권)

37) “畫戟重門楚水陰，天涯欲暮共傷心。南荊雙履痕猶在，北斗孤魂望已深。蓮花幕下悲風起，細柳營邊曉月臨。有路茫茫向誰問，感君空有淚沾襟。”(《全唐詩》809권)

로 “傷心”, “孤魂”, “悲風”, “曉月”, “茫茫”, “淚水” 등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인의 슬픈 감정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의 “그대 생각에 공허히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는 구절은 위상서의 죽음을 슬퍼하는 영일의 감정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영일은 출가 수행하는 불제자로서, 마땅히 세속적 감정에 초탈해야 하겠지만, 특히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던 시승으로서의 영일은 마음을 주고 받던 知己 죽음을 들은 후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영일을 비롯한 중당 시기의 시승들이 세속 문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도 아마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때문일지도 모른다.

영일은 세속 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승려들과도 깊은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초 땅으로 부모님을 뵈러 돌아가는 명소 상인을 떠나 보내며送明素上人歸楚觀省>시가 있다.

소원함과 게으름으로 능히 세상 사람들 등지고, 외로운 부평초 마다않고
자처하네.

그 옛날 강 위에서 함께 은거하다가, 지금은 세상 떠돌며 풍진을 함께하네.

그 옛날 숨어 살던 평호엔 지금쯤 잔설 아직 남아 있으리, 향기로운 풀 가득한 곳으로 돌아가고픈 아내 맘 봄날 되니 더욱 도 막지 못했지.

앞길엔 슬픔보다 좋은 일 많으리니, 집에 이르러 경사 알고 새로이 색동옷
갈아입으리.³⁸⁾

이 시는 같은 불제자인 명소 상인을 송별하며 쓴 시이다. 재미있는 것은 시인과 명소상인 모두 불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에 대해 장인(蔣寅)은 “만약에 제목과 작자를 모른다면 누가 이 시가 승려의 시라고 하겠는가? 이 시는 당시 대력십재자의 시에서 부모님을 뵈러 떠나는 이를 송별하는 시와 무엇이 다른가? 시 중에 사용된 ‘疏懶’, ‘孤萍’, ‘出處’, ‘風塵’, ‘舊隱’, ‘芳草’ 등의 시어는 사대부, 특히

38) “能將疏懶背時人，不厭孤萍任此身。江上昔年同出處，天涯今日共風塵。平湖舊隱應殘雪，芳草歸心未隔春。前路倍憐多勝事，到家知慶綵衣新。”《全唐詩》809권

은둔 생활하는 사대부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시어들이며, 마지막 구의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전고는 효를 칭송할 때 인용하는 것이니, 불제자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³⁹⁾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일의 交遊詩에는 승려로서의 분위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라는 정감형식을 매개로 벗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마 영일을 포함한 중당 시승들이 시에 정통한 시인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또한 이들의 시들이 중당 이전의 승려시와 다른 점이며, 중당 이후 일반 승려와 세속 문인의 교류와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영일의 또 다른 山居寫景詩들을 살펴보자. 위의 시들 이외에도 영일은 풍경 묘사에 매우 뛰어났다. 우선, 불교의 사찰은 모두 경치가 빼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塔銘》에서 영일은 자신의 수행처를 고를 때 특히 경치가 뛰어난 곳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영일은 雲遊를 즐겼다. 빼어난 경치를 안고 있는 산사에서 수행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시가 창작에 몰두했던 영일이었기에 자연은 가장 친숙한 벗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일의 寫景詩는 세속 문인 사대부들의 산수시와는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시와 선의 합일이다. 즉, 선적 깨달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 문학사 혹은 문화사적으로 중당 승려시의 또 다른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詩禪合一”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기도 하다. ⁴⁰⁾

저녁 되니 산색 더욱 푸르고, 숲 속에 들어서니 시내물 돌아 흐르는 소리 맑다.

북우산의 일 알지 못하며, 깊은 동굴은 어찌 저리 소란스러운가

39) 蔣寅, 《大歷詩人研究》, 中華書局, 1995, 334쪽.

“這首詩如果不知道題目、作者, 誰能想到是一首僧人送別僧人的詩? 它與當時大歷十子輩送人歸觀之作有何不同? 詩中‘疏懶’、‘孤萍’、‘出處’、‘風塵’、‘舊隱’、‘芳草’諸語無不是寫士人尤其是處士時常用, 末句綵衣寤親之典更爲歌咏孝道專用, 於釋子尤非所宜。”

40) 줄고 《中唐詩僧群體研究》(2010년 북경사범대학 박사학위 논문) 第5章 참고.

영일의 강독에 연기 피어날 제, 평호엔 아직 달 뜨지 않았네.

고독한 배 한척 자주 길 잃고 헤매이는데, 맑은 가을 샘물 소리만 들려오네.⁴¹⁾

영일의 <개울 길을 거닐다가 溪行卽事>라는 시이다. 이 시는 가을 저녁에 숲길을 혼자 거닐다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듣고서 지은 것이다. 홀로 걷는 가을 저녁 산길이라 고즈넉하기도 하거니와 맑게 흐르는 청량한 시냇물 소리는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청량한 가을 시냇물 소리는 우리를 더없이 평화롭고 청정한 선(禪)의 경계로 안내하고 있다.

산사 문 앞엔 오래된 소나무 많고,

시내 따라 걷다 산사에 이르니 종소리 들려오네.

한밤중에 목을 빼어 높은 봉우리 찾으니,

달이 구름 속 첩첩 봉우리를 내리비추네.⁴²⁾

<정림사에서 묵으며 宿靜林寺>라는 시이다. 깊은 산속 절 칸 앞에 늘어선 오래된 소나무, 그 옆에 절을 끼고 도는 개울, 때마침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 종소리에 취하여 산길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 내려다 보니, 그윽한 달빛 아래 내려다 보이는 첩첩 봉우리들. 이렇게 시를 읽어 내려가면 내가 마치 그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고송들과 맑은 개울물 소리, 그리고 은은한 종소리와 구름 덮인 첩첩 봉우리의 조합이 절묘하다. 특히 종소리는 세상 삼라만상을 일깨우는 소리이니, 그 소리를 듣는 우리들의 정신세계도 맑게 깨어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靜林精舍>라는 시에서는 “조용한 숲속 개울 길 따라 저 멀리, 양무제 소연의 옛 자취가 서려있어라. 시냇물 소리 부유산의 경쇠 치는 듯, 우전산의 옥 소리처럼 산을 울리네. 등불 삼세의 불빛 전하니, 많은 늙은 소나무들에 두루 비치네. 안개 뒤덮인 많은 풍경들, 마치 그 옛날의 와룡의 소리 하늘에 울리는 듯.”⁴³⁾ 이라고 정림정사 주변의 빼어난

41) “近夜山更碧，入林溪轉清。不知伏牛事，潭洞何縱橫。野岸煙初合，平湖月未生。孤舟屢失道，但聽秋泉聲。”

42) “山寺門前多古松，溪行欲到已聞鐘。中宵引領尋高頂，月照云峰共幾重。”

43) “靜林溪路遠，蕭帝有遺蹤。水擊羅浮磬，山鳴于闐鐘。燈傳三世火，樹

경치를 묘사하였다. 여기서는 경쇠 소리 같고 옥으로 만든 편종 소리 같은 시냇물 소리가 온 산을 울리고, 정립정사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안개를 마치 와룡의 포효가 울려 퍼지는 듯 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정립정사의 경치가 얼마나 빼어난 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시들은 선어(禪語)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선의 경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제자로써의 독특한 의식과 시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도 없지는 않다. 일부 寫景詩에서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작품은 많지 않다.⁴⁴⁾ 오히려 불제자로서의 고행적 수행 과정을 시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산 어귀 계를 받는 단으로 가는 길, 마치 바위에 눈이 덮인 듯 그윽한 달빛
이 비치네.

사방의 푸른 돌 침상엔, 산봉우리 같은 이끼 색.

솔바람 잔잔하다 다시 불어오니, 달 그림자 열렸다 다시 어두워지네.

어찌 홀로 이 야밤에 왔을까, 참으로 낮에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⁴⁵⁾

이 《서하산에서 밤에 앉아 棲霞山夜坐》라는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선 수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불교의 참선 수행이 고행적 수행

老萬株松。無數煙霞色，空聞昔臥龍。”

44) 蔣寅은 그런 작품을 다음의 네 수 정도 밖에 없다고 하였다.(蔣寅,《大歷詩人研究》, 中華書局, 1995, 334쪽)

<천주관에 묵으면서 宿天柱觀>: “한 밤중에 선정에 든 것은 독룡 제압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네. 中宵自入定，非是欲降龍。”

<의풍사의 새 샘물 宜豐新泉>: “소박함은 텅빔과 하나되고, 차가움은 다른 무리들과 나뉘어 흐르네. 素將空意合，淨與眾流分”

<대림에서 한명부와 광중정사로 돌아가면서 自大林與韓明府歸郭中精舍>: “선문엔 통은이라는 것 있으니, 시끄러움과 고요함을 모두 잊는다네. 禪門有通隱，喧寂共忘機”

<의풍사를 나오면서 ‘산방’이란 제목의 시 한수를 남기며 將出宜豐寺留題山房>: “만약 만나고 헤어짐 내가 어쩔 수 있다면, 돌아가야 할 때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若言聚散定由我，未是回時那得回”

45) “山頭戒壇路，幽映雪岩側。四面青石床，一峰苔蘚色。松風靜復起，月影開還黑。何獨乘夜來，殊非晝所得。”

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편안함으로 승화되고 있다. 《唐才子傳》에서는 영일의 시가 창작을 “빠어난 쇠구 거리낌없고 선정을 폐하지도 않는다 佳句縱橫，不廢禪定”⁴⁶⁾라고 했다. 즉 선정의 깨달음을 시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시의 경지를 선적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고 있다.

다음으로, 역대 고승대덕에 대한 가송시를 살펴보자. 영일의 시 중에는 <安公>, <林公>, <遠公>이란 제목의 시 3수가 있다.

<安公>

은 세상에 성철로 이름 나, 처음엔 상교(像敎)에 의지하였었지.
 널리 도를 펼침에 실천과 경전을 두루 알았고, 중생 구제 땀 나아가고 물리
 남을 알았다.
 진왕은 그의 말 가벼이 여겼으나, 선비들 그와의 화답 중히 여겼네.
 옛 전서에서 글을 익혔고, 교의는 심경에서 밝혔네.
 법복입고서 화하에 응대하여, 귀한 말씀은 사해에 두루 퍼졌네.
 서쪽 하늘의 뜬 구름 속에서 다시 불국토 이루셨네.⁴⁷⁾

<林公>

지둔은 고상함 믿어, 오랫동안 산림에서 거주하였네.
 그 때 손탁과 허순과 교유하였으니, 어찌 육신으로만 만났으랴.
 다행히 천자의 부름 뿌리치고, 다시 명신들과 멀리하였다네.
 서진에선 허무를 숭상하고, 남조에선 오랫동안 잘못됨에 빠져 있었지.
 노장의 뜻을 담론하니, 소요유의 흥취 다하였어라.
 누가 죽림칠현을 말하는가, 풍류 서로 비교가 되는구나.⁴⁸⁾

46) 《唐才子傳·道人靈一》(부선중 주판, 《唐才子傳》권3, 中華書局, 2000년판, 529쪽)

47) “彌天稱聖哲，像法初繫賴。弘道識行藏，匡時知進退。秦王輕與舉，習生重酬對。學文古篆中，義顯心經內。法服應華夏，金言流海岱。西方浮雲間，更陪龍華會。”

48) “支公信高逸，久向山林住。時將孫許游，豈以形骸遇。幸辭天子詔，復覽名臣疏。西晉尚虛無，南朝久淪誤。因談老莊意，乃盡逍遙趣。誰為竹林賢，風流相比附。”

<遠公>

원공은 도안을 만나, 하루 아침에 유교의 복식을 버렸네.
 참된 불심 오랫동안 사라지고, 세상의 가르침에 헛되이 붙들렸었네.
 불문에 들기 맹세하고선, 마침내 노산에 기거하시었네.
 처음 선경 지으시니, 부처님 말씀 새로이 밝아졌네.
 바루와 선건(禪巾) 쓰고서 제왕들 거절하니, 비녀 꽂은 높은 벼슬아치들
 옷자락 날리며 엎드렸네.
 동림에는 은자들 많아 나에게 부귀영화 말하여 주네.⁴⁹⁾

이 시들은 각각 역대 고승 道安, 支遁, 慧遠을 가송하는 시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들에서 가송하고 있는 내용이 도안과 지도림, 그리고 혜원에 대해 불제자로서의 높은 수양과 불교 교리에 대한 성취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세속 문인들과의 교유나 얽매임이 없이 풍류를 즐겼던 생활 태도라는 점이다. 영일의 시 중에는 세속적 정감과 생활상을 짙게 반영한 시도 한수 남아 있다. 바로 <送人得蕩子歸倡婦>라는 시이다. 蕩子(집을 떠나 온 남자)나 倡婦(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상당히 농후한 세속적 색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편지를 들고서 눈물을 떨구며, 기생집 사람 되었다 하네.
 홀로 지키기 어려움 마음으론 알건만, 또 다시 새로운 봄이로구나.⁵⁰⁾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염려와 그리움이 잘 묻어 나있다. 당자와 창부를 소재로 한 작품은 당대 이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영일이 출가한 승려의 신분임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의 애정을 노래한 시를 지었다는 점에서 당대 불교의 세속화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49) “遠公逢道安，一朝棄儒服。真機久消歇，世教空拘束。誓入羅浮中，遂棲廬山曲。禪經初纂定，佛語新名目。鉢帽絕朝宗，簪裾翻拜伏。東林多隱士，為我辭榮祿。”

50) “垂涕憑回信，為語柳園人。情知獨難守，又是一陽春。”

4. 中唐 僧侶 詩風의 선구자로서의 영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일은 시가 창작에 많은 열정과 재능을 갖추고 있었던 명실 상부한 “시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출생 년대와 활동 시기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즉, 영일은 개원 15년(727년)에 태어나, 보응 원년(762년)에 입적하였으니, 시대적으로 중당이 아니라 성당에 속한다는 것이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영일을 ‘중당 시승 집단의 선구자’라고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영일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시승들의 중심 무대였던 江南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교 발전에서 볼 때, 강남 불교는 위진 이래로 선을 겸수(禪律兼修)⁵²⁾라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안사의 난 이후 많은 문인들이 강남으로 몰려들면서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만들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당 이후의 많은 시승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景遐東은 “당 오대 강남출신 시인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시승이 매우 많다는 것 역시 매우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이다. 강남출신 시인은 34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명이 시승이다. 《全唐詩》《全唐詩補編》에 출신지역이 명확한 시인은 약 1900명 정도 인데 그 중에서 132명이 시승인데, 이는 전체

51) 이에 대해, 중국학자 姜光斗는 <論唐代浙東的詩僧>이란 논문에서 “성당시기에는 현종, 한산, 습득, 풍간, 영일 다섯 명승이 있다.”(中國唐代文學學會, 西北大學中文系, 廣西師範大學出版社 主編, 《唐代文學研究》第6輯,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756쪽)고 말했으며, 손창무도 <당오대시승>에서 영일은 “안사의 난이 끝나기 이전에 입적하였으니 성당후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손창무, 《禪思與詩情》, 中華書局, 1997, 333~369쪽)고 했다.

52) 嚴耀中著, 《江南佛教史》, 上海人民出版社, 2000, 112쪽: “从佛教史最重要的史籍《高僧传》来看, ……如佛驮跋陀罗、慧远、慧观、璽良耶舍、智严、求那跋陀罗等都是早期禅学的主要推动者。而我们从前引史料中可以看到他们基本上又是戒律学的大师。这除了因‘自汉传法, 居处不分禅律’外, 还因为禅即禅定, 《大智度论》卷二八云: ‘四禅亦名禅, 亦名定。’它还在一定程度上包括慧, 而‘慧资于定, 定资于戒’。所以胡适先生指出: ‘在中国禅宗, 慧包括定, 慧的成分多, 并且还包包括戒。’如此一来便‘律即是法, 法不离禅’。可以说六朝时江南的禅律或禅戒的合一, 预演着中国佛教发展的一种趋势。”

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대 전체 시승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시승이 모두 강남출신이라는 점이다.”⁵³⁾

영일은 출가 후 즐곳 강남에서 활동했던 강남의 名僧이었다. 9세에 양주의 용흥사(龍興寺)에서 출가한 후 회계산 남쪽의 현류사(懸溜寺)에서 자리를 잡고 수행하다가 후에 양주 경운사(慶雲寺), 항주 의풍사(宜豐寺)로 옮겼다가 항주 용흥사(龍興寺)에서 입적하였다.

그리고 영일의 세속 문인과의 교유관계를 살펴보면, 대략 30여명과 교유를 맺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로 엄유, 황보염, 황보증, 유장경, 장계, 이서, 독고급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당을 대표하는 시인들로 일컬어진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중당의 시승인 교연이나 영철 등과도 매우 깊은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영일이 대략 이전에 입적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시풍은 이후 강남시풍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중당의 시승 시풍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엄유가 영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작품⁵⁴⁾을 살펴보았듯이, 영일과 엄유는 교유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엄유는 중당 후기의 대표적 시승인 영철이 시를 배웠던 스승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영철은 엄유가 죽고 나서 시승 교연에게 찾아갔으며, 이에 교연은 당시 문단의 핵심인물이었던 포길(包佶)에게 추천하였고, 포길은 다시 이서(李紆)에게 추천하였다.⁵⁵⁾ 이서는 역시 영일과 매우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던 인물이다. 또한 영일과 영철은 직접적으로 교유를 하기도 하였다. ⁵⁶⁾ 특수한 창작집단으로서의 시승은

53) 景遐東, <唐五代江南地區詩歌創作基本狀況述論>, 《學術月刊》, 2001-8.

54) 嚴維 《哭靈上一人》: “一公何不住, 空有遠公名。共說岑山路, 今時不可行。舊房松更老, 新塔草初生。經綸傳緇呂, 文章遍墨卿。禪林枝幹折, 法宇棟梁傾。誰復傳僧史, 應知傳已成。” (《全唐詩》263권)

55) 《全唐文》卷605, 劉禹錫 <澈上人文集序>: “上人生於會稽, 本湯氏子。聰察嗜學, 不肯為凡夫。因辭父母兄出家, 號靈澈, 字源澄。雖受經論, 一心好篇章。從越客嚴維學為詩, 遂籍籍有聞。維卒, 乃抵吳興, 與長老詩僧皎然游, 講藝益至。皎然以書荐於詞人包侍郎佶, 包得之大喜。又以書致於李侍郎紆。是時以文章風韻主盟於世者曰包、李。”

56) 영일의 작품 중에 <贈靈澈禪師>라는 시가 있다. “영철 선사 푸르는 산속을 오가며, 만리길 천개의 봉우리 지나 염산에 이르렀네. 언제 함께 천태산에 가볼이거나,

일반 문인들에 비해 더욱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창작이나 시풍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영향이 세속의 문인들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일의 시가 창작 기풍은 중당 시승의 시가 창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둘째, 영일은 승려로써 전문적으로 시를 창작하는 새로운 풍조를 열었다는 점이다. 《塔銘》에서 영일은 “매번 참선 수행 중 틈이 나면 시를 지었다. 천태의 도사 번청, 광릉의 조평, …… 이들과 교유를 맺고 덕과 도를 논하고 종일 토론 시를 읊조렸다.”고 했으니, 시가 창작이 영일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는 영일이 이들 문인들과 교유할 수 있었던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다.

중당 시기 시가창작에 참여했던 승려들을 “시승”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들은 이전의 승려들에 비해 보다 전문적으로 시가 창작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시는 불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방편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으며 수행의 일부였던 셈이다. 그래서 유우석은 <靈澈上人文集序>에서 “세상의 시승은 강 동쪽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영일이 그 물줄기를 이끌었고, 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청강은 파고를 더욱 높였으며, 법진이 그 뒤를 이었다. …… ”⁵⁷⁾라고 하면서 영일을 시승의 선구자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당 시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가 창작에 대한 자각적 추구와 열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승은 승려로서, 일반 문인 사대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가 창작에 대한 목적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중당의 시승이 시에 대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창작에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의 본분은 역시 출가 승려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역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중생들을

몸은 뜬 구름처럼 한가롭기만 하네. 禪師來往翠微間，萬里千峰到剡山。何時共到天臺裏，身與浮雲處處閑。”

57) 《全唐文》卷605, 劉禹錫 <澈上人文集序>: “評曰: ‘世之言詩僧多出江左。靈一導其源, 護國襲之。清江揚其波, 法振沿之。……’”

계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교연의 시에 대해서는 “식구로 권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한다.”⁵⁸⁾라고 했으며, 영철의 시를 “마음은 아득하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 흔적은 문자에 기탁하였네.”⁵⁹⁾라고 했다. 《塔銘》에서는 영일의 시에 대해, “사람들에게 글로써 시문으로 보여 부처의 지혜를 가르치셨다.”⁶⁰⁾ “무릇 당시의 시단에 부합하였으며, 사대부들과 어울렸다. 그런 후에 차례차례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배움의 길로 이끌었다.”⁶¹⁾고 했으니, 바로 교연이나 영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영일을 비롯한 시승들의 이러한 시가 창작의 목적성은 그들이 출가한 불제자라는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가 창작 실천에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목적성으로 인해 세속의 문인 사대부들과는 또 다른 당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적 경지”와 “선적 깨달음”이 만나, 시와 선이 하나로 되는 “詩禪合一”의 문화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5. 마치면서

영일은 “名士型 詩僧”이다. “소위 명사형 시승이란 유학과 불학에 정통할 뿐 아니라, 뛰어난 문학적 재능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불문의 계율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승려들과 세속인들에게 모두 높이 칭송받았던 시승을 말한다.”⁶²⁾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승 영일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입적하였다. 9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법신을 은사로 모시고 계

58) “以詩句牽勸，令入佛智”，《宋高僧傳》卷29 <唐湖州杼山皎然傳>，(中華書局，1996，728쪽)

59) “心冥空無而跡寄文字”，《全唐文》卷493，權德輿 <送靈澈上人廬山回歸沃州序>

60) “示人文學，以誘世智”

61) “蓋將吻合詞林，與儒墨同期波流，然後循循善誘，指以學路。”

62) 查明昊, 《轉型中的唐代詩僧群體》,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37쪽.

을 매우 중히 여기며 수도 정진하였다. 특히, 불가 수행 속에서도 항상 시가 창작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후세에 명실상부한 “시승”으로 칭송되었다. 특히, 영일은 중당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시승 집단”의 선구자로서, 또한 중당 이후 승려 시풍의 선구자로서, 승려의 시가 창작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다. 그는 뛰어난 시적 재능으로 빼어난 시를 남김으로써 동시대의 문인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평가는 단순한 불교적 수행이 높은 고승대덕이 아니며, 또한 시적 재능만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었던 시인도 아니었다. 李嘉祐가 “불법은 여산의 혜원을 이어받고, 시는 혜휴로부터 전수 받으셨네⁶³⁾”라고 했고, 嚴維가 “경론은 스님네들에게 전하시고, 문장은 목객들에게 두루 이름 나셨네⁶⁴⁾”라고 했던 것처럼, 당시 세속 문인들에게 있어서 영일은 높은 불교적 수행과 뛰어난 시적 재능을 동시에 갖춘 “詩僧”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高仲武는 “제나라 양나라 이래로 출가자 중에서 시문에 뛰어난 자가 많았지만, 진정한 시인의 반열에 들어선 자는 많지 않았다. (영)일공은 능히 마음을 다해 뛰어난 시구를 지어, 사대부들과 화답하였으니, 어찌 훌륭하다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샘물이 앞뜰에서 솟아나고 그림이 집 밖 봉우리에서 생겨나는구나.’와 같은 구절이 어찌 도유나 보월이 이를 수 있는 경지이겠는가!”⁶⁵⁾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영일의 업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우석이 말했듯이 영일은 중당 이후 시승의 탄생을 이끈 선구자였다. 당시 승려들의 시가 창작이 세속 문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출가 승려로서의 고상한 인격과 높은 수양, 그리고 사대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적 재능과 창작 실천이었다고 한다면, 영일은 이러한 명실상부

63) 李嘉祐 <同皇甫冉赴官留別靈一上人> : “法許廬山遠, 詩傳休上人”(《全唐詩》206권)

64) 嚴維 <哭靈一上人> : “經論傳緇呂, 文章遍墨卿”(《全唐詩》263권)

65) 高仲武編, 《中興間氣集·道人靈一》: “自齊梁以來, 道人工文多矣. 罕有入其流者, 一公乃能刻意精妙, 與士大夫更唱迭和, 不其偉歟, 如‘泉涌堦前地, 雲生戶外峰’, 則道猷、寶月曾何及此也。”(傅璇琮編撰, 《唐人選唐詩新編》, 1996, 511쪽)

한 중당 시승의 선구자이다. 名僧이자 詩人이었던 영일은 자신의 불법 수행을 통한 선적 깨달음을 시적 경지로 승화시켰다. 이로써 당시(唐詩)는 새로운 시적 경계(境界)를 얻게 되었고, “선”과 “시”가 하나 되는 새로운 “詩禪合一”의 문화적 전범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참고 문헌

- 清·彭定求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清·董浩等編《全唐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宋·贊寧著, 范祥雍點校, 《宋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1996.
元·辛文房著, 傅璇琮 主編, 《唐才子傳》, 北京: 中華書局, 2000.
沈玉成, 印繼梁 主編, 《中國歷代詩僧全集--晉, 唐, 五代卷》,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7.
- 蔣寅, 《大歷詩人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5.
严耀中著, 《江南佛教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孫昌武, 《禪思與詩情》, 北京: 中華書局, 1997.
查明昊, 《轉型中的唐五代詩僧群體》,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景遐東, <唐五代江南地區詩歌創作基本狀況述論>, 《學術月刊》, 2001. 8.
郜林濤, <大歷詩僧靈一、靈澈述評>, 《山西青年管理干部學院學報》, 2006. 8.
諸祖焜, <靈一叢考>, 《揚州教育學院學報》, 1999. 1.

❖ ABSTRACT

As a Pioneer of the mid-tang dynasty Monk's poem style of Ling-yi's Poem world & the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Lee, Geing Min

This paper is to study the Tang Dynasty monk poet Ling-yi's poem world and his significance on history of literature.

In Chinese literature history, "the monk poets" is a very unique literature creation group. The means of a word "the monk poet", from the literal can see " he is the monk that Can write poems", which is dedicated to professionally writing poetry monk. Buddhism spread to China, from the Wei and Jin Dynasty beginning has been writing poetry of the monks, but the real meaning of "the monk poet" (i.e., professionally poetry monk) appeared to the Mid-Tang Dynasty period. The monk Ling-yi is the pioneer of the monk poets group and Buddhist monk creative poem in Mid-tang Dynasty period.

Although the Lingyi life is very short, only 35 had died, and his poetry has not been too much, only 44 songs, but he in this life of 35 years and 44 poems, for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Chinese poetry left noticeable imprinting. He is not just as monk's high practice and by advocating for great Buddhist scholar, also through the daily meditation in poetry creation practice were obtained at that time of many men of literature and writing respected.

This paper from the poem monk Ling-yi double identity — the first is a Buddhist monk, the second is addicted to poetry poet to proceed, step by step, in-depth study as the poem monk Ling-yi's poetry creation characteristic and the creative mentality characteristics. This thesis also explores the poem monk by the creation of poetry pursuit, exploration, finally realized "poem" and "Zen" together as one "Zen poetry" creation mechanism.

Key Words

영일, 시승, 시승집단, 승려시, 시선합일, 선시

Monk Ling-yi, Monk poets, Monk poets group, Monks' poetry, The fusion of poem and Zen, Zen Poems

논문접수일: 2012. 11. 09.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